

The Gospel of Mark

Sermon 76 – Sermon Notes

Title: “The end of Mark's gospel”

Scripture: Mark 16:9-20

Date preached: March 31st 2024

Scripture: Mark 16:9-20

9 Now when *He*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cast seven demons. 10 She wen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s they mourned and wept. 11 And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live and had been seen by her, they did not believe. 12 After that, He appeared in another form to two of them as they walked and went into the country. 13 And they went and tol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14 Later He appeared to the eleven as they sat at the table; and He rebuked their unbelief and hardness of heart,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15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16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17 And 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with new tongues; 18 they will take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thing deadly, it will by no means hurt them; 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19 So then, after the Lord had spoken to them, He was received up into heaven,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20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the Lord working with *them* and confirming the word through the accompanying signs. Amen.

9 안식일 다음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10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11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후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파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15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18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와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Review

You are probably aware of the Chinese proverb which states,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

How true that is. We are often daunted before beginning a long journey. We look at the trip as a whole and think to ourselves how exhausting it will be. But once we take that first step, once we break that initial psychological barrier we can progress. Perhaps you felt like that when we began our long and winding journey through Mark's gospel back in 2022. On August 28th of that year we took our first step. Where would this journey take us? How long would it last? What adventures might we have along the way? Back then we did not know. Here we are now in March of 2024 bringing our journey of a “thousand miles” to a close. Over the past 75 sermons we have read, and

considered every chapter and verse of Mark's magnificent account. We have studied in depth the life, death and glorious resurrection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What a joy it has been to read, study and think deeply on what God inspired Mark to record. I know personally how blessed I have been as I have prepared these sermons. I hope you feel the same, I hope it has positively transformed your life for the better. My biggest hope for you all is that this series has drawn you closer to, and increased your love for the Lord Jesus Christ.

Before we reach our destination and bring our journey to an end let us consider some of the things we spoke about last time. As I hope you remember we looked at what happened on that amazing Resurrection Sunday morning when the women arrived at the tomb.

The Lord Jesus had been placed in the tomb on Friday. Joseph and Nicodemus had hurried to have the Lord buried before the sabbath officially began at 6pm. Saturday was the Jewish sabbath which meant that nothing could be done. We pick up the story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It was still dark and the sun had yet to ris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went to the tomb in order to anoint Jesus' body. They had prepared some spices and desired to perform this act of loving devotion for Jesus. As I said last time the climatic conditions in Israel meant that body decomposition occurs quickly. As the body breaks down various gases are released. This is what produces the terrible smell. The spices or herbs used in anointing were designed to minimise this odour.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because they were going to anoint Jesus body it means that they were not anticipating a resurrection. They fully expected to find Jesus' tortured and battered corpse lying on a stone shelf inside the tomb.

As they are making their way to the tomb the women discuss among themselves a very practical consideration. They wonder who will help them move the stone blocking the tomb's entrance. This large and heavy stone perhaps weighing close to two tons blocked their access to Jesus. They were also unaware of the Roman imperial seal that had been placed on the stone or the guards posted outside. However as they near the tomb's entrance they notice something shocking. The stone had already been moved aside. The most natural thought would have been that someone had come and taken the body. Therefore they hurry to the entrance and peer inside. When they do so they discover that the tomb is not empty. It's occupied by at least one, possibly two angelic beings. Mark only mentions the angel who speaks but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wasn't another angel present.

The angel, who had the appearance of young man is described as being dressed in white and having a "glowing radiance" about his person. Frequently throughout scripture angelic being are described as being fear inducing. This was certainly the case here. The women are alarmed. The angel begins by telling them not to be alarmed. He then goes on and rebukes them. They are in serious error. They have come to anoint Jesus, but He is not there. Why are they looking for a living person in a place reserved for the dead. He is risen. The women are to take this news back to the disciples. They are to tell them to travel back to Galilee where they will be reunited with Jesus.

We ended last time by reading that this whole experience left the women trembling with fear. They left the tomb and fled into the brightness of that momentous Sunday morning.

Today we will conclude our study of Mark's gospel.

당신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중국 속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종종 겁을 먹습니다. 여행 전체를 바라보며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밟고 초기의 심리적 장벽을 깨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2 년 마가복음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해 8 월 28 일에 우리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 2024 년 3 월에 "천 마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5 번의 설교 동안 우리는 마가복

음의 장엄한 이야기의 모든 장과 절을 읽고 고려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영감을 주어 기록한 내용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길 바라며,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저의 가장 큰 희망은 이 사리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고 여행을 마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놀라운 부활의 일요일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금요일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식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 시가 되기 전에 서둘러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날은 어두웠고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사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향료를 준비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의 행위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에서 사신의 분해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육체가 분해되면서 다양한 가스가 방출됩니다. 이로 인해 악취를 내뿜습니다. 기름 부음에 사용되는 향료나 허브는 이러한 냄새를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 안의 돌 선반에 예수님의 고문당한 구타당한 사체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으로 가는 동안 매우 실용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토론합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 줄지 궁금해합니다. 무게가 2 톤 정도에 달하는 이 크고 무거운 돌은 그들이 예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돌 위에 로마 제국의 인장이 찍혀 있고 외부에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돌이 이미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은 누군가가 사신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입구로 가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덤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소한 한 명, 아마도 두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말하는 천사

청년의 모습을 한 그 천사는 흰 옷을 입고 주변에 “빛나는 광채”가 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천사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곳에서도 확실히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놀랐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더니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기름을 바르러 왔지만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 예비된 곳에서 산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여자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험에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하였다는 것을 읽으며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떠나 그 중대한 일요일 아침의 밝은 빛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Introduction – The conclusion to Mark's gospel

I spoke a little last time about the controversy in some circles regarding the end of Mark's gospel. A large number of biblical scholars and bible translators are troubled by the ending of Mark. It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the major textual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I should note before moving on that this is not an ancient problem. It has not been a problem for the vast majority of Christians over the centuries. In fact this issue of questioning and doubting the authenticity of various parts of the bible only dates back to the late 1800's. It was around this time that we saw the emergence of the Wellhausen School Of Higher Criticism or just Higher Criticism in Germany. Very simply higher criticism is a particular method or approach to examining the Bible. It seeks to discover what was originally meant in the various documents as they were penned in their culture

and time. It is an approach that assumes a secular perspective and denies the supernatural inspiration of Scripture. I'm sure you can see just from that last sentence where the problems emerge. It was scholars from this particular school who began to have serious doubts about the ending of Mark.

Many concluded that the original ended at verse number 8. Therefore the ending that we will consider today; verses 9 to 20 is not genuine. They argue that it was not written by Mark and was a later addition. It is typically flagged, bracketed or footnoted in modern bible translations. In the NIV for example a note is inserted between verses 8 and 9. In the ESV the section is placed in brackets. In the NKJV that I am using there is a footnote telling me that this passage is questionable as regards its authenticity. The main reason for questioning the authenticity of this portion of scripture comes from the fact that it does not appear in the two oldest existing Greek manuscripts (dated from 325 and 340 A.D.). The technical names for these manuscripts are the Codex Sinaiticus and the Codex Vaticanus.

So what are we to believe? Do these verses belong in our bibles or not? Let me very briefly make the case for and against.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마지막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과 번역가들은 마가복음의 결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신약성서의 주요 본문 문제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래 전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 수세기 동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문제는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벨하우젠 고등 비평 학파 간단히 말해서 고등 비평 Higher Criticism 이 출현한 것이 이 무렵이었습니다. 고등비평은 성경을 검토하는 특정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문서가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시대에 의지했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추구합니다. 이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성경의 초자연적 영감을 부정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성경에 대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추종했던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본이 8 절에서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20 절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가가 쓴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성경 번역에서는 이 구절들에 일반적으로 표시, 괄호 또는 각주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NIV 에서는 8 절과 9 절 사이에 메모가 삽입됩니다. ESV 에서는 해당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NKJV 에는 이 구절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이 부분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두 그리스어 사본(서기 325 년과 340 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본들은 Codex Sinaiticus 와 Codex Vaticanus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구절들은 성경에 속할까요, 아닐까요? 간단하게 찬성과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rguments against

As I just noted this passage (Verses 9-20) does not appear in the two earliest manuscripts we have. The assumption here is that older means more reliable. The more copies that are made and the longer period of time elapses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mistakes or errors creeping in. So the closer the document is to the original then in theory at least its more likely to be accurate.

Another line of evidence against the authenticity of these writings is that som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show they had no knowledge of these verses. They neither mention nor cite them.

We might also highlight the abrupt and awkward transition between verse 8 and 9. They don't seem to flow very smoothly together. Verse 9 switches from the women to Jesus without specifically identifying him, but just saying *he*. We might also consider the stylistic changes evident in this passage and the kind of vocabulary used. It reads somewhat differently to the rest of Mark's gospel. For example there are 18 words used in this passage that do not appear elsewhere in Mark.

What about the evidence in favour of including this passage in our bibles.

반대하는 주장들

방금 언급했듯이 이 구절(9-20 절)은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두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오래된 □□□□ □□□ □□□ □□□□. 더 많은 복사본을 만들고 오랜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문서가 원본이 쓰여진 시기에 가까울수록 정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신뢰성에 반대하는 또 다른 증거는 초대 교회 교부들 중 일부가 이 구절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들을 언급도 인용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8 절과 9 절 사이의 갑작스럽고 어색한 전환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구절이 함께 매끄럽게 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9 절에서는 여인들에서 예수님으로 전환하여 예수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지 그리고만 말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문체의 변화와 사용된 어휘의 종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 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다소 다르게 읽혀집니다. 예를 들어 이 구절에는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18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포함된다는데 유리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Arguments for

We noted in our arguments against that two early manuscripts do not have this ending to Mark. However this needs to be balanced agains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ancient manuscripts which do include this passage. It was well known to many in the early church. More importantly there was no debate regarding its authenticity. It was simply accepted as being part of God's revelation. It was quoted or mentioned by numerous influential church fathers. Included in this group are Papias writing around 100 AD, Justin Martyr in around 151 AD, Irenaus in “Against Heresies” quoted Mark 16:13 (180 AD) and Hippolytus quoted Mark 16:18 and 19 (190-227 AD).

As regards the stylistic changes or even the new words Mark uses these differences are often overblown. The same criticisms have been levelled against the different writings of Paul for example. The issue with this kind of observation is that it can be highly subjective. If I am inclined to see a stylistic change then I can probably find one.

I hope that wasn't too overwhelming. This is of course a highly technical subject. I have barely scratched the surface here. If the subject interests you there are plenty of good sources arguing for both for and against its inclusion.

In my opinion after studying the subject myself, and consulting with those who have researched the matter thoroughly the evidence I think is strongly in favour of this being the original ending of Mark's gospel. I don't think that we have a good reason to discard it, or consider it spurious. Let us turn and examine it now.

찬성하는 주장들

앞서 반대하는 주장에서 두 개의 초기 사본의 마가복음에 이 결말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구절을 포함하는 고대 사본들이 수적으로 압도적이라는 사실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많은 영향력 있는 교부들이 이 구절들을 인용하거나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주후 100 년경에 기록한 파피아스, 주후 151 년경에 순교한 저스틴, 마가복음 16 장 13 절(주후 180 년)을 인용한 “이단을 반대하며 *Against Heresies*”의 이레나우스, 마가복음 16 장 18 절과 19 절(주후 190-227 년)을 인용한 히폴리투스가 포함됩니다.

문체의 변화나 마가가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에 관해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종종 과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율의 다른 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관찰의 문제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체적인 변화를 찾으려고 한다면 저도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는 매우 기술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아주 피상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본문 구절 포함 여부를 다루는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저 스스로 검토해보고 그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를 살펴본 후에 드리는 제 의견은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이라는 증거들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폐가하거나 가짜라고 생각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9 Now when *He*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cast seven demons. 10 She wen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s they mourned and wept.

We find ourselves still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Sunday. The Lord Jesus has risen and the tomb is empty. This is what the women discovered when they first arrived. We spoke last time about their encounter with the angelic being and the fear he elicited. The women flee from the tomb and go to inform the disciples. Peter and John accompanied by Mary Magdalene run back to the tomb and discover that the body has gone. This is Mary's second visit. Peter and John then leave presumably to report back to the other disciples. Mary remains at the tomb site. Mary is about to become a very important figure in gospel history. She will be the first person to witness the risen Christ. This may be why Mark takes the time to identify exactly which Mary he means. She is the Mary who Jesus had exorcised of seven demons.

Mark's account of this momentous encounter is brief, it receives far greater coverage in John's gospel (John 20:11-17). John tells us that Mary was outside the tomb weeping and greatly distressed. He also tells us that she looked inside the tomb and saw two angelic beings. They ask her why she is weeping, and she tells them it is because Jesus's body has been taken. It is at this point that Mary encounters the risen Lord Jesus. Interestingly she doesn't recognise Him at first and mistakes Him for a gardener. This failure to recognise Jesus has led to much speculation. The Lord Jesus appeared in His resurrected body which meant He could do things that were not possible in His human body. But it's also interesting to consider whether His appearance had changed in some way. Why was it that Mary did not recognise Him? It's certainly possible that His appearance had altered in some way. But there may be a more mundane explanation. Perhaps it was dark in the garden under the trees and Mary could not see Him clearly. Maybe her eyes were blurry from crying. Perhaps he was some distance away when she first saw Him.

We should also not overlook the fact that she did not anticipate meeting the risen Lord Jesus.

They have a brief conversation during which Jesus instructs her to go and tell the others that He is risen. Mary dutifully obeys. She finds the disciples who are as we might imagine in a wretched state; mourning and weeping. Their beloved rabbi was dead and all the hopes and dreams they had invested in Him were also seemingly dead.

Let us see how this message is received.

여전히 주의 첫째 날 즉 일요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발견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천사의 만남과 그가 불러일으킨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쳐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이 마리아의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순간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마리아입니다.

이 중대한 만남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간단하며, 요한복음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어집니다(요한복음 20:11-17). 요한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몹시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두 천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사로 착각합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변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분의 외모가 어떤 식으로든 바뀌었을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평범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동산 나무 아래 어두워서 마리아는 그분을 분명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울어서 눈이 흐려졌을지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꽤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마리아는 애도하며 울고있는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1 And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live and had been seen by her, they did not believe.

Let us try to imagine this scene. The disciples gathered together in a room. They are in a state of abject misery. In comes Mary Magdalene full of unbridled joy. She tells them that she has just met the risen Lord Jesus. Not only did she see Him, but she touched and spoke with Him. She must have expected that they would respond with great happiness. When we give people life transforming news we expect them to be elated. How tragic then for us to read that they did not believe her testimony. Perhaps this should not surprise us. The unbelief of the disciples has been a constant theme throughout Mark's Gospel.

Did they disbelieve the testimony because it came from a woman? Perhaps this was the case. Remember in that culture the testimony of a woman was not accepted in a court. Did they not believe because Mary was considered unreliable, or prone to making up tall tails? Or did they disbelieve her because Mary had the reputation for being a little strange, or even crazy! We have no reason for suspecting this to be the case. After all they had seen and witnessed it's odd that they simply dismiss what she says. Let us continue.

11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제자들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방금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큰 기쁨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언이 여자에게서 왔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말을 지어내는 경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메리가 약간 이상하거나 심지어 미쳤다는 평판 때문에 그녀를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목격한 제자들이 그녀의 증언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계속합시다.

12 After that, He appeared in another form to two of them as they walked and went into the country. 13 And they went and tol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 very condensed version of the encounter Jesus had with two of His followers on the Emmaus road. You can read this fascinating story in Luke chapter 24. Let me briefly summarise it here. Jesus joins the two men as they are travelling on the road from Jerusalem to Emmaus. He doesn't reveal to them who He is. As they walk along He asks the two men what they are discussing. They explain that they follow a man who they'd believed to be a prophet. They thought He might just be the Messiah. The one who would rescue Israel from Roman rule. But sadly things had not gone as they had hoped. This man upon whom they had pinned their hopes had been crucified. The two men go on to say that some of the women in their company had gone to the tomb and found it empty. An angelic being had told the women that this man is now alive. Two men (John and Peter) also found the tomb empty, but none of them knew what it meant.

Jesus responds to these men by explaining how the Old Testament specifically says the Messiah must die and be raised again. The two men invite their companion to stay for a meal. It isn't until Jesus takes the bread, breaks it, and prays over it that they realize who He is. Jesus vanishes from their sight, and they rush back to Jerusalem and report to the disciples.

The disciples are delighted to hear this news and go around sharing this amazing revelation with everyone they meet. No, this is not what happens. Again they respond with unbelief. They didn't believe a woman (Mary) and now they won't believe two men. A more direct manifestation is required to break these men out of their unbelief. Let's find out what happens next.

12 그 후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엠마오 길에서 두 명의 추종자들과 만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 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명과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밝히지 않으십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을 따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바로 이사야를 로마의 통치에서 구출할 메시아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던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 같은 존재가 여자들에게 그분이 지금 살아 있다고 말했고, 두 사람(요한과 베드로)도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고 기록한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고 떼어 기도하신 후에야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고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여자(마리아)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두 남자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더욱 직접적인 출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시다.

14 Later He appeared to the eleven as they sat at the table; and He rebuked their unbelief and hardness of heart,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Mark tells us that later, on that same Sunday evening (Resurrection day) Jesus appeared to the eleven. Mark here means the remaining disciples. Actually there were only ten present. Judas Iscariot had departed and Thomas was absent (John 20:24). The ten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behind locked doors because they feared the Jewish authorities. Jesus we read in John came and stood among them.

He gives them a very stern rebuke. He is greatly disappointed in them for two reasons. Firstly they have failed to believe the eye-witness testimony of three followers. We don't know what the basis was for this dismissal of eyewitness testimony. Did they think that these people were making the whole thing up? Or that they were simply grief stricken and hallucinating? Or that they were simply mistaken?

Secondly, and this is much worse their hearts are hardened to even the possibility of the resurrection. Had they been just a little sceptical, or suspicious but at least been open to the possibility of the resurrection then that would have been better. Not great, given all their experiences but better. However they are totally closed to the possibility of the resurrection being true. It is this attitude that earns them the strong rebuke. Let us continue and see that they Lord will command these men to do.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을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들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마카는 같은 일요일 저녁(부활일)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카는 남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참석하신 사람은 10 명뿐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떠났고 도마는 없었습니다(요한복음 20:24). 열 명의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매우 엄중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세 명의 추종자들의 목격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무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슬픔에 잠겨 환각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착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둘째로, 이것은 더 심각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간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부활의 가능성에 열려 있었다면 그것은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경험을 고려하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들이 강한 질책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들에게 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5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16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Mark here gives us his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We see it given slightly later in Matthew's gospel. In Matthew, they receive the command to go and share the gospel when they have met Jesus in Galilee. Here, in Mark they are still in Jerusalem. I want you to note that this is a command. It's not a suggestion. In the military when an officer gives a command he expects it to be obeyed. It is not open to discussion or debate. To disobey or refuse to obey an order is grounds for a court-martial.

So Jesus is commanding the disciples to go. It's not an option, it's an order. Where are they to go? Jesus provides the widest possible scope for operation. All the world needs to know. There is nowhere that is off limits. There are many places today where it is difficult or challenging for a Christian evangelist to go. But this should not serve as an excuse. We are to obey our Lord's command and trust Him to protect and provide for us.

What was it they were to tell people? They were to give them the gospel. The English word *gospel* is the translation of the Greek noun *euangelion* meaning “good news,” and the verb *euangelizo*, meaning “to bring or announce good news.” When we speak of the gospel we might have either a broad or narrow definition in mind. Broadly speaking the gospel is the whole of Scripture. All that

God has revealed is “good news” in the sense that it tells us about a God who created, loved and desired to save us. More narrowly, the gospel is the good news concerning Jesus Christ and the specific way of salvation. It is the narrow definition that the disciples are to preach to the world. The word preach here is from the Greek root word *kerusso*. It can be translated as “to proclaim” or “to herald.”

In England every town has a town crier or a town herald. Today their role is purely ceremonial but in the old days they performed an important public function. They would travel around the town to prominent public places and shout out important news. They would announce in a loud booming voice that a king or queen had died, a plague had hit the land, or that a war had been declared. The disciples were called upon to perform a similar role for the people in their day.

They are to go out to all of God's creation and shout out to all willing to hear what needs to be heard. What exactly is it that people need to hear?

Mark puts it simply, but in a way that a surface reading only may lead to a misunderstanding. Please allow me to point out an important truth her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You might read the first part;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and think that Mark is saying the following. In order to be saved one needs to believe in Christ AND be baptised. That would make baptism a requirement for salvation. That is not what Mark is teaching. Baptism is not a requirement for salvation. The second part of the verse affirms this, **but he who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Mark is saying that those who don't believe in Christ are condemned, not those who believe but are not baptised. So simply put you can be saved without being baptized. So why be baptised? Baptism comes as a response to salvation. When we are baptized we are giving a public affirmation that we choose to follow Jesus. So this is why we should seek to be baptised, not because it adds in any way to our salvation. Let us continue.

15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여기서 마가는 대시명을 그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시명을 받았습니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장교가 명령을 내릴 때 그는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을 기대합니다. 토론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군법회의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를 제공하십니다. 온 세상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전도자가 가기가 어렵고 힘든 곳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영어 단어 복음(gospel)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명사 euangelion 과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알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euangelizo 를 번역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넓은 정의나 좁은 정의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 복음은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제자들은 좁은 의미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포 preach 라는 단어는 헬리어 어원인 케루소(kerusso)에서 유래되었고 “선포하다” 또는 “소식을 전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마을에 마을 외침꾼이나 마을 전령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역할은 순전히 의례적인 역할이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유명한 공공 장소에서 중요한 소식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왕 또는 왕비가 죽었거나 전염병이 땅에 퍼졌다거나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을 위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가까이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들어야 할 소식을 외쳐야 합니다. □ 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가는 이를 단순히 설명하므로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마가가 말한 “**믿고 세례를 받는 □□□ 구원을 받고**” 라는 부분을 읽고 □□□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가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이 이것을 확증하는데 **믿지 않는 □□□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세례는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이지 세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구원을 더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7 And 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with new tongues; 18 they will take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thing deadly, it will by no means hurt them; 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These verses indicate that the disciples will be supernaturally empowered by God for the work they are to do. They had already had some experience with this. Back in Mark chapter 6 we read about Jesus equipping and sending out the twelve two by two. As part of this ministry they cast out demons and healed the sick. Jesus tells them that they will again be empowered, or given spiritual gifts in five particular areas.

The first spiritual gift would be the ability to cast out demons. In the beginning years of the church, casting out demons was a common miracle that identified the speaker as a follower of Jesus (Acts 5:16; 8:7; 19:12). In one case, Paul cast out a demon just because it was irritating him (Acts 16:18).

They will also have the ability to speak with new tongues. This is the second gift. We have no record of the disciples speaking in languages they didn't know prior to this point. However as we know on Pentecost all that changed (Acts 2:1–13). God enabled them to speak real language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a whole range of different nationalities. I very purposefully used the word “real” in that last sentence. Tongues in the New Testament were always human languages. In the bible the gift of tongues is the God given ability to be able to speak a known language of which you have no previous knowledge. It would be like God giving me the ability to speak in Russian so that I could share the gospel with some Russians. So, this is not the “gift of tongues” practised by many today. Tongues in most cases today is the uttering of complete gibberish that is understood by no-one. What use would this have been in proclaiming the gospel and establishing the church? None at all.

The third spiritual gift regards snakes. The disciples would be able to take up, literally pick up serpents and not be harmed. Or more practically that the venom of snakes would not harm them. Again we saw an example of this in the book of Acts. When the Apostle Paul arrives in Malta he is bitten by a deadly viper (Acts 28:1-6). The local people watch him carefully expecting him to drop dead at any moment. But God ensured that the viper's poison does not affect him. Sadly the same could not be said for John David Brock. Brock was a member of Mossy Simpson Pentecostal church in Jenson, Kentucky. In July of 2015 he was taking part in a snake-handling session at the church. The rattlesnake he was holding bit him. He refused medical treatment, citing this verse from Mark and later died of the poison.

The fourth spiritual gift is the ability to withstand the consumption of something deadly. This may refer to the accidental drinking of something that is tainted or off. Without refrigeration foods and drinks spoiled quickly in the ancient world. Drinking such a liquid wouldn't render the disciple sick or debilitated.

네 번째 영적 은사는 치명적인 독을 들어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오염된 무언가를 살수로 마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냉장고가 없었으니 음식과 음료가 빨리 상했습니다. 그러한 상한 것을 마신다고 해서 제자가 아프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제자의 설교를 막기 위해 독살하려고 해도 독소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치명적인 액체를 마셔도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표적은 손을 얹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 □□ □□□ □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앓은뱅이를 고쳤습니다(행 3:1~10).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지나간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행 5:12-16). 나중에 성령께서는 바울이 만졌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만진 사람들도 낮게해 주심으로써 바울의 사역을 확장하셨습니다(행 19:11-12).

그렇다면 왜일까요? Paul 은 뱀에게 물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John David Brock 은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표적 은사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주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표적이거나 기적의 기간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세우도록 이 기간 동안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1 세기가 끝나갈 즈음 표적 은사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들이 뱀과 독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메시지를 확장하시고 신성한 보호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위험한 뱀을 다루거나 독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거나 시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9 So then, after the Lord had spoken to them, He was received up into heaven,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Following His resurrection Jesus stayed on the earth for a further 40 days. He spent this time teaching and preparing the disciples for what was to come. At the end of this time period He led the disciples back toward Jerusalem. Near Bethany, He met with them one last time, telling them to wait in Jerusalem for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cts 1:1-9). Following this He was received or taken up into heaven. This is how the event is recorded in Acts.

Now when He had spoken these things, while they watched, He was taken up, and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 (Acts 1:9)

Once the Lord Jesus reached heaven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That He would do this is affirmed in several places in scripture. Jesus said that the Messiah will sit at God's right hand in His teaching at the temple (Mark 12:35–37). Peter asserts that Jesus is at God's right hand during his first sermon after he received the Holy Spirit (Acts 2:33). We also get Stephen's account. As he is being stoned to death, he says he sees Jesus standing at God's right hand (Acts 7:55).

What does it mean to be at God the Father's "right hand?" God's right hand is the place of highest honour or favour with God the Father. In the bible it is often used as a symbol for strength and power (Psalm 18:35; 20:6). Several psalms assert that salvation comes from God's right hand (Psalm 60:5; 98:1; 108:6).

John Calvin in his Institutes explains Jesus taking up this position as follows,

"Christ was invested with lordship over heaven and earth, and solemnly entered into possession of the government committed to him — and that he not only entered into possession once for all, but continues in it, until he shall come down on Judgment Day" (Institutes 2.16.15).

The Lord Jesus will remain here, at God's right hand until He returns at the time of His second

coming. Let us conclude our study of Mark's gospel with verse 20.

19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지상에서 40 일 동안 더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데 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1-9). 그 후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 □□□□□□ □□□□ □□□□ .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9)

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증됩니다. 예수님은 상전에서 가르치실 때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2:35~37).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주장합니다(행 2:33). 또한 스테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행 7:55).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예와 은총을 받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사편 18:35; 20:6). 여러 사편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사편 60:5; 98:1; 108:6).

존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예수께서 이 자리를 취하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권을 부여받으셨고 그에게 맡겨진 정부를 암묵히 소유하게 되셨으며 단 한 번만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 날에 □□□□ 때까지 그 통치를 계속하신다”(Institutes 2.16.15).

주 예수님은 재림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연구를 20 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the Lord working with *them* and confirming the word through the accompanying signs. Amen.

What an appropriate way for this gospel of servant-hood to conclude. After all, a servant's work is never done. A master, or king can sit and rest but a servant always has things to do. The disciples knew there was much work to be done. They did not sit around chatting or basking in the good news they immediately began to work. This work involved them travelling around and preaching the gospel as they went. We can read about how this transpired in the book of Acts. As they faithfully went God confirmed they were doing His will by allowing them to perform signs that confirmed who they were and the message they carried. Its amazing to think that this small group of Jewish men (empowered by God) transformed the world.

And so our journey through Mark comes to its end. Let me close by giving you something to think about.

20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이 종의 복음이 이런 식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종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이나 왕은 없어서 될 수 있지만 종은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저 않아서 노닥거리지 않고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

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여러분과 저-를 통해 알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구원없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일하고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찮고 준비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마가의 놀라운 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모든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섬김의 기록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는 주저앉아서 쓸모 없는 존재로 남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합시다.

